

인터뷰

“어려울수록 경쟁보다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강원도가 건설시장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지난 연말 동계올림픽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장 건설비는 국비로 7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림픽 필수 기간 교통망인 원주~강릉 간 철도 사업 등 각종 인프라 건설 물량도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물량 확대라는 기대와 함께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및 철새 업체 속출, 부실 시공 등도 우려되는 것이다. 이에 건설 외길만 걸어오면서 나눔 경영 등을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고양에 애쓰고 있는 강원도 건설단체의 수장인 박용성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을 만나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대처 방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박용성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태백건설산업(주) 대표이사

2011년도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회는 특히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떠한 활동들을 펼치셨는지요?

먼저, 지난 한 해 회원사의 많은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건설협회 내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된 것에 대해 도내 회원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지역 업체는 공공공사 의존율이 높고 민간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 신규 사업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건설 물량 속에서 최대한의 도내 업체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회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업체를 위해 무엇보다도 수주 물량 확보에 전념하였습니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이

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혁신도시 대상 시·도회와 함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건 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처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움 과 제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 규정이 2011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에 도 혁신도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에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연장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한 결과 2013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 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삼척에 대규모로 조성 중인 가스공사 LNG 발전시설 및 한국남부발전 그린파워 생산기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 및 관련 부처에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 결과 지역 업체가 참여 가 능한 입찰 공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동계올림픽특별법, 폐광지역지원특별 법 제·개정과 함께 원주~강릉 철도는 물론 춘천~속초 철도 건설 등으로 공공 건설투자가 크게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건설투자 확대는 도내 건설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체되었던 도내 SOC 사업의 발주가 가시화되면서 낙후된 강원 지역 발전 및 그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공사 발주 형태를 보면 턴 키, BTL 등 점점 대형화·민영화 추세로 발주되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실적이나 자금력 등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 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업체

가 느끼는 체감 건설경기는 올해에도 크게 회복되지 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경기장 및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있지만 민간 투자 확대 등 간 접적인 효과 또한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번 올림픽 유치가 건설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획 기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며 세계 속의 강원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회입니 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계올 림픽을 통한 총 경제적 효과는 약 64조원에 다르며, 이 중 시설투자 등의 직접 효과는 약 21조원, 관 광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따른 간접 효과는 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경 기 활성화에 따른 민간 투자 등의 파급 효과 또한 상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성장 동력 없이 기회의 땅으로만 인식되던 강원도가 올림 픽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각인되어 아시아 를 대표하는 동계 기지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사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건설산업 또한 경기장 시설 및 접근망 확충 등 대회 개최를 위 한 인프라 시설 투자가 본격화되면 침체된 건설경기 의 활성화와 함께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를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물량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대거 강원도로 몰려들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 증 등이 우려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페이퍼

인터뷰

“강원도가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각인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계 스포츠 기지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사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컴퍼니 같은 부실 업체가 무분별하게 강원도로 몰려와 부실 시공 및 임금 체불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까지 발생했던 태풍(루사, 매미) 및 집중 호우로 도내에 수해 복구 공사가 다수 생겼을 때 단기적인 수익 충족만을 노리고 전입해 온 일부 업체들로 인해 부실 시공 및 불법 하도급, 지역 자금 유출, 임금 체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 향토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통과된 동계올림픽특별법을 통해 철새 업체 진입 방지 및 지역 업체 육성 방안 등의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특별법」상에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으며,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도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조사 및 부실 시공 방지 등의 수시 점검을 통해 과거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2년 간 유예하였습니다. 향후 어떤 근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역 중소 업체의 입지를 위협하는 최저가낙찰제가 2년 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행 철회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모든 건설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적인 확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남은 2년 동안 최저가낙찰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선진 건설시장의 정착을 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성장통일 뿐 건설업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경쟁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인심제태산이(人心齊太山移)’란 말처럼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함께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회는 올해에도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불합리한 건설 관련 규제 개선 및 대형 공사의 분할 발주·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방지·품셈 및 실적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회 발전을 위해 많은 회원사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